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82호 [무게 제25225호] 주제 105 (2016)년 3월 22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나라 선박수리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조선인민군 해군 제597군부대관하 10월3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천만군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승리의 5월을 향해 질풍노도처럼 내달리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자력자강으로 부강조국을 일떠세워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을 힘있게 파시하며 또 하나의 기념비적 창조물이 솟아올랐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나라 선박수리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전변된 조선인민군 해군 제597군부대관하 10월3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황병서 동지, 리명수 동지, 윤동현 동지, 조용현 동지, 김정식 동지, 마원춘 동지가 동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공장파 해당 부문의 일군들이 맞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2월 이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 있는 공장을 우리 나라 선박수리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파견해주시였으며 현대화공사에



1947년 7월 우리 나라의 첫 합선수리기지로 조직된 10월3일공장은 장장 수십년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자랑스러운 발전행로를 걸어왔다고 하시면서 2011년 3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공장을 찾으시였던 날을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잊지 못할 그날 주체적 해군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해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눈물겨운 헌신과 로고를 언제나 잊지 말고 10월3일 공장을 현대적으로 잘 꾸려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해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음성이 지금도 울리는것만 같다고 뜨겁게 되뇌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대적으로 꾸러진 공장을 위대한 장군님께 보여드릴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시면서 장군님께서 계실 때 공장을 현대화하지 못한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러난다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핌을 떠나 공장의 오늘을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잘 꾸리는데 맞게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명도업적의 깃이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약전작업반, 기관수리직장, 가공직장, 시운전장, 도크, 부두 등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현대화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10월3일 공장을 현대화한 결과 그 어떤 전투합선들도 짧은 기간에 수리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기관 및 선체의 원성능회복은 물론 통신, 탐지, 항해설비들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각종 공작기계들, 권양설비들, 측정설비들, 지주장비 등을 그르하게 갖추어놓았을뿐만아니라 모든 생산공정과 기술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다고 하시였다.

특히 컴퓨터로 기관고장원인과 원성능회복정형을 과학적으로 진단, 검증할수 있게 기관시운전장을 잘 꾸려놓았다고 하시면서 이런 기술공정을 다른 선박수리공장들에도 갖추어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합선수리를 최대한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도크를 훌륭히 개건하였으며 부두와 호안공사도 흠잡을데없이 하였다고 하시였다.

이 따르없는 긴장한 전루를 벌려 연건축면적 5만 1,750여㎡에 달하는 생산건물, 생활건물들에 대한 신설 및 개건을 진행하고 890여㎡에 달하는 부두 및 호안공사를 진행하였을뿐만아니라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함으

로써 10월3일공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명칭이선박수리공장으로 일신시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지난해에 보았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게 완전히 때뵈이를 하

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 선박수리 부문에서도 본보기, 표준이 마련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어제와 오늘을 보여주는 사진만 보아도 천지개벽되였다는것이 알린다고 하시면서 공장구내를 감싸고있는 갖가지 나무들과 주단마냥 펼쳐진 잔디들이 정말 보기 좋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직접 풀어주시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신 전투적과업을 심장깊이 새기고 펼쳐나선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군들, 종업원들, 과학자, 기술자, 군인건설자들은 낮과 밤

